

작품 내용

제 목	모방에는 흉터가 없다
내 용	어머니는 밤마다 붉은 실로 새를 놓으셨다. 바늘 끝에 찢려 맺힌 피 한 방울이 새의 깃이 되어 날아오르던 밤. 뒷면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. 매듭을 짓고, 어둠을 풀며 완성한 날개. 누군가 시장 어귀에서 그 새를 찍어 가 공장의 기계 속으로 무수히 복사해 넣을 때, 어머니의 바늘은 손가락 끝에서 길을 잃었다. 모방은 피 흘리지 않은 채 날개를 얻지만 진짜 비상은 오직 흉터에서 시작되는 법. 오늘도 나는 잘려 나간 실밥을 주우며 어머니의 굳은살 위에 나만의 새를 다시 그린다. 그 새는 오직 한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.